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현재와 미래

교육과학기술부 우주개발과장 유국희

ABSTRACT

지난 1992년 우리별 1호를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은 시작되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현재 까지 다목적실용위성 시리즈를 비롯하여 과학위성, 정지궤도 위성에 이르기까지 다양 종류의 위성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우주를 이용하는 선진국의 대열에 동참하였다. 우주개발은 국가의 위상제고 뿐 아니라 신 성장산업으로서의 성장동력을 제공하고 고부가가치의 창출로 미래산업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기상, 환경, 재난감시 그리고 위치 추적과 같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등의 생활 환경 개선과 녹색성장의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해에는 다목적실용위성 호의 영상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등 우주개발을 산업화로 전화하는 노력도 시작되었다. 한편 위성체 개발에만 국한하지 않고 우주발사체의 개발에도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2009년 올해에 발사에정인 KSLV-I 을 위한 개발도 2002년부터 시작되어 발사체를 독자개발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앞으로 달 탐사와 달착륙, 행성탐사, 그리고 독자 기술로 개발하여 운용될 KSLV-II 까지 앞으로의 우리나라 우주개발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과 개발 전략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때이다.